

勞 動 經 濟 論 集
第20卷(2), 1997. 12 pp.107~12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斷層勞動市場의 賃金構造變動 및 安定性分析*

류 재 술**

< 目 次 >

I. 序 論	IV. 同一斷層內 賃金構造의 變動趨勢
II. 賃金構造 變動 및 安全性 分析方法	V. 斷層間 同一斷層內 賃金構造 의 安定性
III. 斷層間 賃金構造의 變動趨勢	VI. 結 論

I. 序 論

한국 노동시장은 노동수요 측면에 단층성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단층성이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존재하고 동시에 고용관리관행이 양측면을 결합시키고 유지·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층구조를 갖는다.¹⁾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하에서는 승급이나 승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하위단층(도시잡업층이 이에 속함), 승급의 기회는 주어진나 관리직으로의 승격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중하위단층(중졸 이하 남자와 중고졸 이하 여자가 이에 속함), 승급의 기회와 하급 또는 중간관리직

* 이 논문은 1996년도 경산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경산대 경제학과 조교수.

1)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에 대해서는 이효수(1984)를 참조.

으로의 승격의 기회만 주어지는 중상위단층(고졸 남자와 전문대졸 및 대졸 여자가 이에 속함), 승급과 상위관리직으로의 승격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상위단층(대졸 남자가 이에 속함)으로 구분된다.²⁾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는 단층구분을 위한 판별함수추정(이효수, 1984, 264~281쪽 참조), 단층별 승격확률함수의 추정(이효수·류재술, 1990 참조), 단층별 임금체계 및 승급기회의 분석(류재술, 1992 참조), 단층별 스플라인 함수형 임금함수 추정(류재술, 1994 참조)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하에서는 임금구조를 단층간 임금격차와 동일단층내 임금격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단층간 임금격차는 단층별 임금체계의 상이성과 단층별 임금결정원리의 상이성에 의하여 단층간에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말한다. 동일단층내 임금격차는 산업, 직종, 기업규모의 속성에 따라 동일단층내 산업간·직종간 기업규모간에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구조 분석을 위한 단층노동시장론의 임금구조가설에 따르면 ① 단층간에는 노동시장의 제도적·관습적 요인에 의하여 노동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단층간 임금격차는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지속되는 데 반하여 ② 동일단층내에서는 노동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단층내 임금격차는 비교적 작으면서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다.³⁾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단층노동시장론의 임금구조가설에 따라 첫째, 변이계수(vari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단층간 임금격차와 동일단층내 임금격차의 정도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임금구조의 안정성분석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 대신에 새로운 켄달의 일치계수 W(Kendall coefficient of concordance W)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단층간 임금구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지속되고 있는지, 동일단층내 임금구조는 얼마나 불안정적으로 변동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단층간 동일단층내 임금구조분석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전제로 한 임금구조분석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간 임금격차(산업간 임금격차, 직종간 임금격차, 규모간 임금격차)와는 연구시각을 달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임금구조의 특

2) 단층의 수와 각 단층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단층을 분류하는 노동력의 질적 기준이 되는 요소도 고용관리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층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효수(1984, 제13장 단층구조변동) 참조.

3) 단층간 노동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동일단층내에서는 산업간·직종간·기업규모간에 노동이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한다(이효수, 1984, 282~310쪽 참조).

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임금구조의 분석시각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II. 賃金構造變動 및 安定性 分析方法

1. 賃金構造 變動의 分析方法

단층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단층구조하에서 승급의 기회는 모든 단층에서 주어 지지만 각 단층간 승격기회의 차별과 그에 따른 최고 승급가능액의 차이와 단층별 임금결정원리의 상이성과 단층간 노동이동의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이다.

그러나 동일단층내 임금격차는 단층간 임금격차와는 달리 동일단층내의 산업이나 직종, 규모의 속성에 따라 또는 우수인력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금격차이다. 왜냐하면 동일단층내에서는 승격의 기회와 승급의 기회가 각 단층별로 동일하게 주어 지고 있고 동일단층내에서는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임금결정원리도 서로 같고 노동이동 또한 동일단층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층간 임금구조의 변동분석에서 임금상 대비인 상위·중상위단층간 임금격차율(상위단층의 실질임금/중상위단층의 실질임금)과 중상위·중하위단층간 임금격차율(중하위단층의 실질임금/중상위단층의 실질임금)을 각각 구하게 되면 이들 임금격차율은 비교되는 대상의 두 단층간 임금격차의 정도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단층간 임금격차의 정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이계수(vari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일단층내 임금구조의 변동분석에서도 동일단층내 산업간(직종간·기업규모간) 임금격차율(상위단층 광업의 실질임금/상위단층 제조업의 실질임금, 상위단층 전기·가스업의 실질임금/상위단층 제조업의 실질임금 등등)은 동일단층내에서 비교되는 대상의 두 산업간(직종간·기업규모간)의 임금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동일단층내 산업간(직종간·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정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도 변이계수를 이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변이계수는 특정부문(중상위단층, 제조업, 제3규모)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대상부문과의 임금격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의 임금이 전체 평균에 비하여 어느 정도 분산되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변이계수를 각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단층간, 동일단층내 임금격차의 확대 또는 축소의 경향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단층간 임금격차와 동일단층내 임금격차의 정도와 단층간, 동일단층내 임금격차의 확대 또는 축소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변이계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2. 賃金構造 安定性の 分析方法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층간 노동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단층간 임금구조는 대단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일단층내에서는 노동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고임금부문이 존재하면 저임금부문의 노동자가 고임금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한 고임금부문의 임금은 하락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한 저임금부문의 임금은 상승하기 때문에 동일단층내 임금구조는 단층간 임금구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단히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단층간 임금구조변동에서는 각 단층별 실질임금수준간에 순위변동이 거의 없지만, 동일단층내 임금구조변동에서는 동일단층내 각 산업별(직종별·기업규모별) 실질임금수준간에 순위변동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1971~95년 기간에 대한 단층간, 동일단층내 임금구조 안정성 여부는 비모수통계학의 순위상관분석을 통하여 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순위상관분석 중 만약 순위에 대한 k 개의 조(k sets of rankings)를 갖고 있을 때는 켄달의 일치계수 W 를 이용하면 k 개 조(예를 들면, 1971~95년의 25개 조) 사이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W = \frac{\sum_{i=1}^N (\bar{R}_i - \bar{R})^2}{N(N^2 - 1) / 12}$$

여기서,

N : 순위가 부여되는 대상(예를 들면 단층, 산업, 직종, 규모)의 수

\bar{R}_i : i 번째 대상에 부여된 순위의 평균,

\bar{R} : 모든 대상에 부여된 순위의 총평균

4)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예컨대 단층간 또는 동일단층내 임금격차가 클수록 변이계수는 크게 된다. 배무기(1993), R.F. Elliott(1991)에서도 임금격차 분석에 변이계수를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k 개 변량간의 동시적 순위상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켄달의 일치계수(Kendall coefficient of concordance)를 이용해야 한다(S. Siegel & N. J. Castellan, 1988, pp. 262~266을 참조).

이 된다.

이때 k 개 조 사이의 순위에 대한 변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즉 임금구조가 안정적일수록 W 의 값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지만 k 개 조 사이의 순위에 대한 변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임금구조가 불안정적일수록 W 의 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층노동시장의 단층간, 동일단층내 임금구조의 안정성 검정은 임의로 선택된 두 비교 시점간의 안정성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1971~95년의 전기간에 걸친 전반적 임금구조의 안정성을 검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순위상관분석중 켄달의 일치계수 W 를 이용하고자 한다.⁶⁾

Ⅲ. 斷層間 賃金構造의 變動趨勢

단층노동시장론의 임금구조가설에 따라 단층간 임금구조의 변동추세분석을 위하여 1971~95년의 각 연도별 단층간 임금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를 구한 것이 <표 1>이다.

<표 1>에 의하여 각 연도별로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1971년에는 0.712이지만 그 이후 계속 높아져 1976년에는 0.843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1977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변이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변이계수가 지

6) 일반적으로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

$$r_s = 1 - \frac{6 \sum d_i^2}{n^3 - n}$$

로 임금구조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있다. 전기호(1978), 배무기(1993), 210쪽과 S. Siegel, N. J. Castellan (1988), 235~237쪽을 참조.

그러나 스피어만의 r_s 를 이용해 임의로 설정한 두 비교 시점 사이의 순위변동을 중심으로 임금구조 안정성을 검정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설정한 두 비교 시점의 차이에 따라 임금구조 안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커다란 단점을 지니고 있다(1967년과 1977년을 두 비교 시점으로 한 전기호(1978)의 연구가 그러함). 왜냐하면 임의로 설정된 1971년과 1995년의 두 비교 시점 사이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순위변동이 거의 없지만, 1981년과 1995년, 1981년과 1994년…… 등의 두 비교 시점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순위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전기간에 대한 전반적 임금구조 안정성 검정은 켄달의 일치계수 W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단층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 이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도 단층간 임금격차는 1970년대 초반의 단층간 임금격차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근에 이러한 단층간 임금격차가 계속 축소되긴 하였으나 1995년에 아직도 변이계수가 0.467을 기록해 단층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단층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

	변 이 계 수		변 이 계 수
1971	0.712	1984	0.746
1972	0.735	1985	0.740
1973	0.746	1986	0.722
1974	0.765	1987	0.709
1975	0.821	1988	0.645
1976	0.843	1989	0.610
1977	0.831	1990	0.586
1978	0.827	1991	0.566
1979	0.805	1992	0.523
1980	0.786	1993	0.491
1981	0.770	1994	0.472
1982	0.760	1995	0.467
1983	0.752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특히 단층간 임금격차가 어떤 산업, 어떤 직종, 어떤 규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러한 단층간 임금격차가 어떤 산업, 어떤 직종, 어떤 규모에서 확대 또는 축소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産業別 斷層間 賃金隔差의 變動

<표 2>의 산업별 단층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7) 배무기(1982)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5년경에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때부터 중하위단층을 중심으로 한 무제한적 노동공급이 종식되면서 이와 같은 단층간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1980년대말까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에는 변이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단층효과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기술집약산업이기 때문에 기술계 공고졸 남자 중심의 중상위단층과 고졸 이하 여자나 중졸 이하 남자 중심의 중하위단층간에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노동력의 이질성이 강화되면서 임금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데 따른 현상이다.

<표 2> 산업별 단층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서비스업
1971	0.467	0.782	0.105	0.676	0.845	0.512	0.549	0.691
1972	0.611	0.759	0.175	0.430	0.788	0.422	0.590	0.724
1973	0.598	0.763	0.194	0.571	0.803	0.539	0.629	0.713
1974	0.615	0.828	0.181	0.575	0.820	0.597	0.679	0.699
1975	0.692	0.869	0.327	0.585	0.812	0.741	0.709	0.726
1976	0.710	0.863	0.255	0.608	0.871	0.794	0.731	0.845
1977	0.613	0.845	0.419	0.546	0.835	0.718	0.709	0.766
1978	0.572	0.778	0.406	0.754	0.816	0.716	0.690	0.750
1979	0.628	0.833	0.490	0.740	0.801	0.609	0.678	0.690
1980	0.523	0.824	0.405	0.587	0.806	0.622	0.701	0.681
1981	0.554	0.806	0.409	0.610	0.782	0.641	0.632	0.688
1982	0.541	0.786	0.406	0.617	0.752	0.630	0.636	0.708
1983	0.527	0.754	0.412	0.621	0.754	0.631	0.638	0.721
1984	0.646	0.740	0.439	0.633	0.745	0.516	0.635	0.750
1985	0.542	0.718	0.485	0.626	0.737	0.516	0.697	0.742
1986	0.508	0.697	0.464	0.635	0.729	0.476	0.702	0.719
1987	0.532	0.664	0.333	0.571	0.706	0.442	0.686	0.763
1988	0.380	0.635	0.465	0.484	0.555	0.483	0.644	0.714
1989	0.265	0.596	0.463	0.513	0.564	0.420	0.625	0.686
1990	0.371	0.568	0.420	0.482	0.568	0.408	0.622	0.624
1991	0.395	0.551	0.337	0.472	0.588	0.372	0.607	0.619
1992	0.394	0.490	0.315	0.430	0.598	0.248	0.565	0.581
1993	0.264	0.465	0.353	0.356	0.500	0.256	0.551	0.575
1994	0.266	0.434	0.319	0.356	0.429	0.252	0.533	0.589
1995	0.261	0.424	0.309	0.381	0.459	0.322	0.547	0.579

주: 표에 나타난 값은 변이계수임.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 이후 이들 각 산업에서 단층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축소되고 있는 산업은 광업으로 나타난다. 광업 역시 산업의 속성상 직무의 성격이 주로 채탄과 관련한 생산적 직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중상위단층과 중하위단층의 직무성격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들 중상위단층과 중하위단층간에는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데 따른 현상이다.

그 다음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변이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단층효과가 약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각 산업별 단층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변이계수가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0.381, 0.322, 0.309로,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0.459, 0.424로,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각각 0.547, 0.579로 나타나 단층간 임금격차를 산업별로 세분해 보더라도 단층간 임금격차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2. 職種別 斷層間 賃金隔差의 變動

<표 3>의 직종별 단층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 사실들이 나타난다.

우선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직종에서 변이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단층효과가 약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각 직종별 단층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변이계수가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각각 0.389, 0.343으로,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의 경우에는 0.412, 0.431로 나타나 단층간 임금격차를 직종별로 세분해 보더라도 단층간 임금격차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표 3> 직종별 단층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1974	0.638	0.490	0.705	0.752	0.664	0.689
1975	0.563	0.481	0.709	0.748	0.414	0.615
1976	0.654	0.549	0.712	0.651	0.781	0.560
1977	0.635	0.421	0.589	0.838	0.486	0.801
1978	0.604	0.452	0.657	0.800	0.500	0.734
1979	0.628	0.391	0.676	0.808	0.617	0.701
1980	0.588	0.365	0.623	0.602	0.482	0.593
1981	0.591	0.398	0.629	0.648	0.504	0.600
1982	0.640	0.371	0.621	0.716	0.500	0.550
1983	0.570	0.386	0.612	0.548	0.449	0.426
1984	0.632	0.368	0.598	0.611	0.359	0.358
1985	0.619	0.342	0.602	0.641	0.388	0.304
1986	0.657	0.415	0.584	0.655	0.450	0.386
1987	0.717	0.378	0.560	0.631	0.550	0.323
1988	0.706	0.432	0.520	0.619	0.634	0.297
1989	0.600	0.395	0.515	0.460	0.343	0.435
1990	0.592	0.368	0.480	0.456	0.293	0.313
1991	0.519	0.220	0.468	0.367	0.287	0.333
1992	0.505	0.284	0.441	0.372	0.227	0.271
1993	0.387	0.288	0.409	n.a.	0.459	0.263
1994	0.422	0.277	0.384	n.a.	0.344	0.220
1995	0.412	0.431	0.389	n.a.	0.343	0.217

주 : 표에 나타난 값은 변이계수임.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3. 企業規模別 斷層間 賃金隔差의 變動

<표 4>의 규모별 단층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 사실들이 나타난다.

먼저 직종의 경우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규모에서 변이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단층효과는 약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규모별 단층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1980	0.758	0.785	0.773	0.783	0.792
1981	0.752	0.762	0.783	0.781	0.766
1982	0.754	0.744	0.781	0.797	0.762
1983	0.733	0.746	0.744	0.775	0.754
1984	0.728	0.738	0.758	0.752	0.732
1985	0.740	0.720	0.750	0.720	0.754
1986	0.724	0.704	0.712	0.691	0.701
1987	0.702	0.711	0.708	0.710	0.718
1988	0.664	0.656	0.630	0.619	0.646
1989	0.610	0.620	0.587	0.575	0.595
1990	0.569	0.590	0.575	0.549	0.564
1991	0.578	0.574	0.547	0.514	0.538
1992	0.541	0.514	0.482	0.491	0.514
1993	0.500	0.481	0.487	0.440	0.451
1994	0.471	0.477	0.455	0.425	0.416
1995	0.514	0.477	0.450	0.434	0.402

주 : 표에 나타난 값은 변이계수임.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 이후 중소규모보다는 대규모에 가까울수록 단층간 임금격차가 약간 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주로 중소규모 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이 활성화된 것에 기인한다. 즉 이때 노조의 목소리효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주로 대기업 노조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중상위·중하위단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위단층과 중상위(중하위)단층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규모별 단층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변이계수가 소규모인 1규모와 2규모의 경우에는 각각 0.514, 0.477로, 중규모인 3규모의 경우에는 0.450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4규모와 5규모의 경우에는 각각 0.434, 0.402로 나타나 단층간 임금격차를 규모별로 세분해 보더라도 단층간 임금격차는 거의 모든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전제로 한 임금구조분석의 결과,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적 특징에 따라 모든 산업, 직종, 규모에서 단층간 임금격차가 비교적 크게 약 25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同一斷層內 賃金構造의 變動趨勢

단층노동시장론의 임금구조가설에 따라 동일단층내 산업간·직종간·규모간 임금구조의 변동추세분석을 위하여 1971~95년의 동일단층내 산업간·직종간·규모간 임금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를 구한 것이 <표 5>, <표 6>, <표 7>이다.

1. 同一斷層內 産業間 賃金隔差의 變動

<표 5>에 의하면 상위단층내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도 변이계수가 약 0.17 전후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그 이후 최근에는 0.099까지 감소하고 있고, 중하위단층내에서도 1970년대 초반에 0.4 전후로 나타나던 변이계수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속에서 0.132까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변이계수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상위단층내, 중상위단층내, 중하위단층내에서 산업간 임금격차는 아주 미미한 가운데 더욱더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단층별로 산업간 임금격차가 모두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어느 단층에서 산업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하여 변이계수를 각 단층간에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상위단층내에서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중하위단층내에서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즉 동일단층내 산업간 임금격차는 상위단층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중하위단층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의 경우 각 산업은 지역적 특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안배로 인하여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각 산업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상위단층의 경우에는 본사의 인력관리부서에서 신규학졸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채용광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하위단층의 경우에는 현지 공장단위에서 수시로 연고 또는 구인벽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위단층은 상대적으로 취업정보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편이어서 상위단층에서는 산업간 임금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된다. 그러나 중하위단층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제

<표 5> 단층별 산업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

	상위단층	중상위단층	중하위단층
1971	0.148	0.246	0.491
1972	0.186	0.305	0.434
1973	0.174	0.248	0.408
1974	0.172	0.205	0.338
1975	0.159	0.246	0.359
1976	0.082	0.256	0.369
1977	0.055	0.180	0.268
1978	0.082	0.165	0.250
1979	0.133	0.132	0.143
1980	0.069	0.067	0.179
1981	0.084	0.074	0.159
1982	0.056	0.107	0.160
1983	0.063	0.119	0.159
1984	0.093	0.129	0.158
1985	0.101	0.141	0.140
1986	0.108	0.194	0.184
1987	0.127	0.171	0.182
1988	0.108	0.148	0.138
1989	0.117	0.102	0.125
1990	0.093	0.139	0.130
1991	0.085	0.151	0.151
1992	0.098	0.128	0.158
1993	0.101	0.150	0.143
1994	0.108	0.124	0.136
1995	0.099	0.097	0.132

주 : 표에 나타난 값은 변이계수임.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한적인 취업정보만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간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중하위단층에서는 산업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단층내 산업간 임금격차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각 단층별로 변이계수가 0.099, 0.097, 0.132로 아주 작게 나타나 동일단층내 산업간 임금격차는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2. 同一斷層內 職種間 賃金隔差의 變動

<표 6>에 의하면 상위단층, 중상위단층, 중하위단층에서 1970년대 중반에 약 0.20~0.2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던 변이계수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속에서 상위단층은 0.136, 중상위단층은 0.105, 중하위단층은 0.092까지 감소하고 있다. 즉 상위단층내, 중상위단층내, 중하위단층내에서 직종간 임금격차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도 더욱 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단층별 직종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

	상위단층	중상위단층	중하위단층
1974	0.165	0.181	0.120
1975	0.279	0.231	0.192
1976	0.199	0.224	0.219
1977	0.263	0.246	0.213
1978	0.238	0.222	0.195
1979	0.144	0.221	0.220
1980	0.241	0.227	0.209
1981	0.185	0.211	0.164
1982	0.183	0.168	0.118
1983	0.250	0.192	0.188
1984	0.280	0.202	0.157
1985	0.226	0.189	0.164
1986	0.229	0.212	0.150
1987	0.200	0.193	0.103
1988	0.101	0.156	0.063
1989	0.245	0.171	0.076
1990	0.233	0.163	0.064
1991	0.243	0.188	0.097
1992	0.241	0.162	0.069
1993	0.113	0.143	0.162
1994	0.172	0.117	0.116
1995	0.136	0.105	0.092

주 : 표에 나타난 값은 변이계수임.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그런데 동일단층내 직종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에서도 어느 단층에서 직종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이계수를 각 단층간에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변이계수가 상위단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중하위단층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즉 동일단층내 직종간 임금격차는 상위단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고 중하위단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직종의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모든 단층이 일정한 비율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종에 특정 단층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즉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의 경우에는 상위단층이 집중분포하고 있지만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에는 중하위단층이 집중분포하고 있다. 이때 상위단층은 상위단층 지배직종에서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는 상위단층 지배직종 이외의 다른 직종에서 취업기회를 찾게 된다. 이러한 상위단층의 일부 노동자는 자연히 상위단층 지배직종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감수하면서 취업한 후 상위단층 지배직종에 대한 취업정보를 탐색하거나 아니면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위단층내 직종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하위단층의 경우에는 상위단층 지배직종으로의 진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만 극소수의 중하위단층 노동자가 이들 직종으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상위단층과는 아주 다른 특수전문직종에 국한하여 진입이 가능할 뿐이다. 그 외 대부분의 중하위단층 노동자들은 중하위단층 지배직종인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의 취업정보를 토대로 취업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 중하위단층은 승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빈번한 노동이동으로 중하위단층내에서는 직종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단층내 직종간 임금격차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각 단층별로 변이계수가 0.136, 0.105, 0.092로 아주 작게 나타나 동일단층내 직종간 임금격차도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3. 同一斷層內 企業規模間 賃金隔差의 變動

<표 7>에 의하면 상위단층내, 중상위단층내, 중하위단층내 변이계수가 1980년대초에 아주 작은 0.063, 0.020, 0.041에서 최근에 상위단층은 0.071, 중상위단층은 0.125, 중하위단층은 0.153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동일단층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아직도 대단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일단층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에서도 어느 단층내에서 기업규모간 임

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이계수를 각 단층간에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노동자 대투쟁 이전까지는 상위단층에서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는 중상위단층에서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즉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상위단층에서 규모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이후에는 중상위단층에서 규모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단층별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변동추세

	상위단층	중상위단층	중하위단층
1980	0.063	0.020	0.041
1981	0.052	0.020	0.030
1982	0.081	0.029	0.049
1983	0.079	0.040	0.050
1984	0.074	0.061	0.051
1985	0.063	0.050	0.051
1986	0.062	0.061	0.071
1987	0.073	0.080	0.063
1988	0.102	0.155	0.125
1989	0.131	0.180	0.155
1990	0.131	0.162	0.140
1991	0.090	0.151	0.131
1992	0.079	0.110	0.095
1993	0.084	0.127	0.121
1994	0.084	0.126	0.134
1995	0.071	0.125	0.153

주 : 표에 나타난 값은 변이계수임.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이것은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 직무구조⁸⁾하에서 상위관리층 까지 승격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는 상위단층의 경우에는 피라미드형의 직무구조가 짧은 중소규모 기업내 상위단층의 임금수준보다 피라미드형의 직무구조가 비교적 긴 대규모 기업내의 상위단층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위단층내 기업규모간 임금격

8) 규모의 경우에 대규모 기업내에는 피라미드형의 직무구조가 대단히 긴 편인 데 반하여 중규모 기업내에서는 이 피라미드형의 직무구조가 대규모 기업보다 짧고 소규모 기업내에서는 이 피라미드형의 직무구조가 대단히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주로 사무직과 관리직에 있는 상위단층은 대부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중상위단층은 노동조합원의 중추적 역할을 이루고 있다. 노동조합원의 중추적 역할을 이루고 있는 이들 중상위단층의 목소리효과(voice effect)는 기업의 임금지불능력과 결부되어 대규모 기업내에서는 임금상승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극히 미약한 소규모 기업내에서는 임금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오히려 중상위단층에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단층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각 단층별로 변이계수가 0.071, 0.125, 0.153으로 아주 작게 나타나 동일단층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도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전제로 한 임금구조분석의 결과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적 특징에 따라 동일단층내에서는 산업간·직종간·규모간 임금격차가 아주 미미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斷層間 同一斷層內 賃金構造의 安定性

1. 斷層間 賃金構造의 安定性

단층노동시장론의 임금구조가설에 따라 단층간 임금구조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1971~95년까지 전년도와 상위단층 실질임금수준, 중상위단층 실질임금수준, 중하위단층 실질임금수준 순위에 대하여 켄달의 일치계수 W 를 구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 <표 8>이다.

<표 8>에 의하면 켄달의 일치계수 W 가 1.000으로 나타남으로써 단층간 임금구조는 극도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즉 1971~95년의 동기간 동안에 상위단층의 실질임금수준이 가장 높고, 중상위단층의 실질임금수준이 그 다음으로 높고, 중하위단층의 실질임금수준이 가장 낮으며, 이들 단층간의 실질임금수준간에는 단 한번의 순위변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전제로 한 단층간 임금구조 안정성의 분석결

<표 8> 단층간 임금구조의 안정성

W	χ^2
1.000*	50.0000

주: 1) 1971~95년의 전년도에 대하여 산업내 각 단층별 실질임금수준이 높은 단층부터 낮은 단층으로 순위를 부여한 후 계산.

2)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과에 따르면 단층간 임금구조는 놀라울이만큼 대단히 안정적으로 유지·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同一斷層內 賃金構造의 不安全性

단층노동시장론의 임금구조가설에 따라 동일단층내 산업간·직종간·규모간 임금구조의 불안정성 검정을 위하여 1971~95년까지 전년도의 동일단층내 각 산업별·직종별·규모별 실질임금수준 순위에 대하여 켄달의 일치계수 W 를 구한 결과가 <표 9>, <표 10>, <표 11>이다.

<표 9>에 의하면 상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3704로 나타나고 중상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7428로 나타나고, 중하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8327로 나타났다. 즉 1971~95년의 동기간 동안에 동일단층내 각 산업별 실질임금수준의 순위가 크게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일단층내 산업간 임금구조는 비교적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동일단층내 산업간 임금구조의 불안정성

	상위단층	중상위단층	중하위단층
W	0.3704*	0.7428*	0.8327*
χ^2	64.8134	129.9867	145.7200

주: 1) 1971~95년의 전년도에 대하여 동일단층내 각 산업별 실질임금수준이 높은 산업부터 낮은 산업으로 순위를 부여한 후 계산.

2)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표 10> 동일단층내 직종간 임금구조의 불안정성

	상위단층	중상위단층	중하위단층
W	0.8250*	0.9313*	0.7880*
χ^2	90.7532	102.4416	86.6753

주: 1) 1974~95년의 전년도에 대하여 동일단층내 각 직종별 실질임금수준이 높은 직종부터 낮은 직종으로 순위를 부여한 후 계산.

2)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표 10>에 의하면 상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8250으로 나타나고, 중상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9313으로 나타나고, 중하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7880으로 나타났다. 즉 1974~95년의 동기간 동안에 동일단층내 각 직종별 실질임금수준의 순위도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일단층내 직종간 임금구조도 비교적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 동일단층내 규모간 임금구조의 불안정성

	상위단층	중상위단층	중하위단층
W	0.6484*	0.8141*	0.8539*
χ^2	41.5000	52.1000	54.6500

주: 1) 1980~95년의 전년도에 대하여 동일단층내 각 규모별 실질임금수준이 높은 규모부터 낮은 규모로 순위를 부여한 후 계산.

2)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각년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임.

<표 11>에 의하면 상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6484로 나타나고, 중상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8141로 나타나고, 중하위단층의 켄달의 일치계수 W 는 0.8539로 나타났다. 즉 1980~95년의 동기간 동안에 동일단층내 각 규모별 실질임금수준의 순위도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일단층내 규모간 임금구조도 비교적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전제로 한 동일단층내 산업간·직종간·규모간 임금구조 불안정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일단층내 산업간 임금구조, 동일단층내 직종간 임금구조, 동일단층내 규모간 임금구조는 비교적 불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VI. 結 論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시각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하여 임금구조변동 및 안정성 분석을 하였다. 특히 단층노동시장론의 임금구조가설에 따른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나타난다.

첫째, 단층간 임금구조변동에서 우리나라가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변이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층간 임금격차가 전환점 통과 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1995년까지도 변이계수가 0.467로 나타나 단층간 임금격차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층간 임금격차를 산업별·직종별·기업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더라도 거의 모든 산업, 직종, 기업규모에서 단층간 임금격차는 공통적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단층내 산업간 임금격차에서는 변이계수가 0.097~0.132, 동일단층내 직종간 임금격차에서는 변이계수가 0.092~0.136, 동일단층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서는 변이계수가 0.071~0.153으로 각각 나타나 동일단층내 임금격차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셋째, 단층간 임금구조의 안정성을 검정한 결과 켄달의 일치계수 W 가 1.000으로 나타남으로써 단층간 임금구조는 극도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단층내 산업간·직종간·기업규모간 임금구조의 안정성 검정 결과에서는 켄달의 일치계수 W 가 1보다 작은 0.3~0.8의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동일단층내 임금구조는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의 임금구조변동 및 안정성 분석은 임금관련 통계자료가 이용가능한 1971~95년까지의 전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단층간 임금격차는 크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동일단층내 임금격차는 미미하면서 불안정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즉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적 특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임금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임금구조분석은 그 나라의 노동시장구조와 관련하여 분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영배·윤봉준, 『경제발전과 적정임금-우리나라 임금수준의 평가와 정책방향-』, 노동경제연구원, 1991.
- 김재원, 「한국임금구조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한국경제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1989.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71~91.
-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2~95.
- 류재술, 「단층노동시장의 단층별 임금체계와 승급기회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15권, 한국노동경제학회, 1992.
- , 「단층별 스플라인함수형 임금함수추정」, 『경제학연구』, 제41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1994.
- 박영범, 『80년대 한국 임금구조의 추이와 특성』, 1991년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경제학회, 1992.
-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1993.
- 이효수, 『노동시장구조론-한국 노동시장의 이론과 실증-』, 법문사, 1984.
- 이효수·류재술, 「단층별 승격확률의 추정」, 『노동경제논집』 제13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제4차 국제한국인 경제학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990.
- 전기호,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전철환·이경의, 『한국사회구조』, 화다출판사, 1985.
- , “한국의 임금구조와 그 변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78.
- Daniel, W.W., *Applied Nonparametric Statistics*, Houghton Mifflin Company, 1978.
- Ehrenberg, R.G. and R.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Theory and Public Policy*,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5.
- Elliott, R.F., *Labor Economics : A Comparative Text*, McGraw- Hill Book Company, 1991.
- Ghair, J.F., R.E. Anderson, R.L. Tatham and B.J. Grablowsky,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troleum Publishing Company, 1979.

- Judge, G.G., W.E. Griffiths, R.C. Hill, H. Lutkepohl, T.C. Le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Inc., 1985.
- Lilien, D.M., R.E. Hall, *Micro TSP User's Manual*, Quantitative Micro Software Irvine, California, 1990.
- McConnell C.R. and S.L. Bru,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McGraw-Hill Book Company, 1989.
- Moo ki Bai,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Economies*, June, 1982.
- Nie, N.H., C.H. Hull, J.G. Jenkins, K. Steinbrenner, D.H. Bent,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McGraw-Hill Book Company, 1975.
- Pindyck, R.S., and D.L.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McGraw-Hill, 1981.
- Purdy, D., *Social Power and the Labour Market*, Macmillan Education Ltd, 1988.
- Siegel, S. and N.J. Castellan, Jr., *Nonparametric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McGraw-Hill Book Company, 1988.